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6월 15일

제07-27호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양 평 섭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psyang@kiep.go.kr, Tel; 3460-1121)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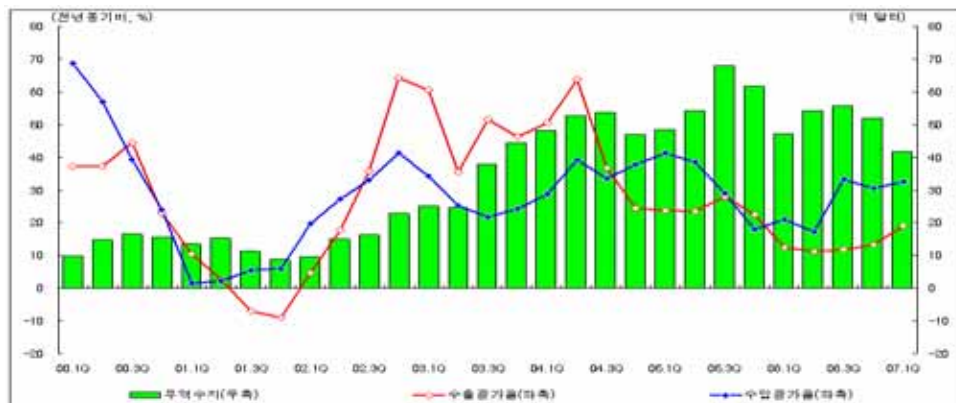
- 2004년 3/4분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입증가율이 대중국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됨.
 - 그 요인으로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즈니스환경 악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 이외에 중국의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들 수 있음.
 - 특히 중국은 산업발전단계 중 성숙기에 진입한 업종에 대해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보면 최종재의 경우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진 반면, 중간재는 수입대체 말기에 진입하였음.
 - 소비재는 1990년대 말 이후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자본재는 2001년 이후 수출기에 접어들었으며, 반제품은 2006년을 기점으로 수입대체기를 벗어나 수출기로 전환되고 있고, 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가전 및 음향기기부품, 컴퓨터부품은 1990년대 중반 수출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부품 역시 2003년 이후 수출기로 전환되었고,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기타 전자부품(반도체 제외)은 수입대체 말기에 위치함.
- 중장기적으로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수출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중국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1.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동향

가. 중국의 수입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동향

- 2004년 3/4분기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대중국 수입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가 지속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006년 1/4분기 이후 10%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대중국 수입증가율은 2006년 3/4분기 이후에는 30%를 넘어섬.

그림 1. 한국의 대중국 분기별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DB를 이용해 작성함.

- 이에 따라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의 점유율도 2005년 11.6%에서 2006년에는 11.3%로 하락함.

표 1. 중국 수입시장에서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국가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1~3월)
일 본	17.6	18.1	18.0	16.8	15.2	14.6	14.4
ASEAN	9.5	10.6	11.5	11.2	11.4	11.3	11.7
한 국	9.6	9.7	10.4	11.1	11.6	11.3	11.3
대 만	11.2	12.9	11.9	11.5	11.3	11.0	10.2
중 국	3.6	5.1	6.1	6.9	8.4	9.3	8.9
미 국	10.8	9.2	8.2	8.0	7.4	7.5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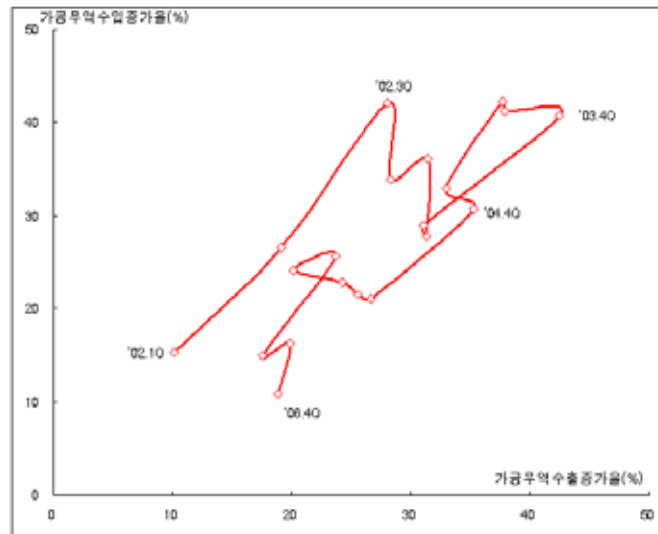
자료 : 중국해관통계;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즈니스환경 악화에 따른 한국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중국의 정책 변화, 중국의 수입대체와 같은 구조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을 둔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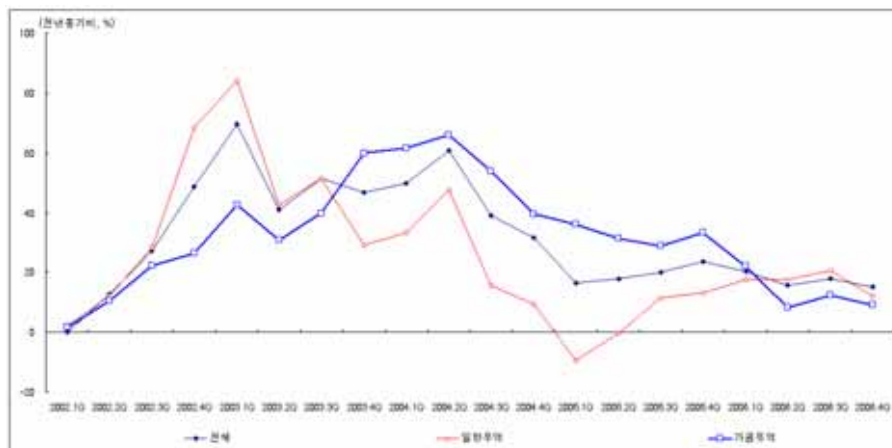
-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2006년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은 16.9% 증가(전년대비 10.0% 하락)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가공무역 수입도 15.4% 증가(전년대비 8.2% 하락)에 그침.

그림 2.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증가율과 수출증가율



- 중국의 가공무역정책의 변화는 가공무역이 54.5%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위축시킨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국의 가공무역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004년 2/4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한국의 전체 대중국 수출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그림 3 참고).

그림 3. 무역방식별 대중국 수출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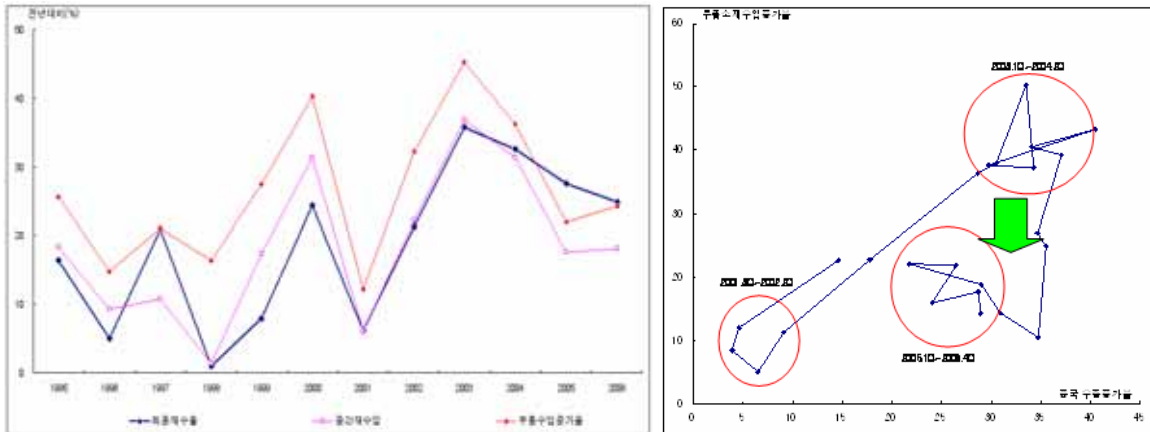


자료 : 중국해관, 중국의 대한국 수입 통계를 이용함.

다.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증가율 둔화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

- 2004년 3/4분기 이후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증가율이 최종재 수출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로 전환됨. 이는 중국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의 부품·소재 자급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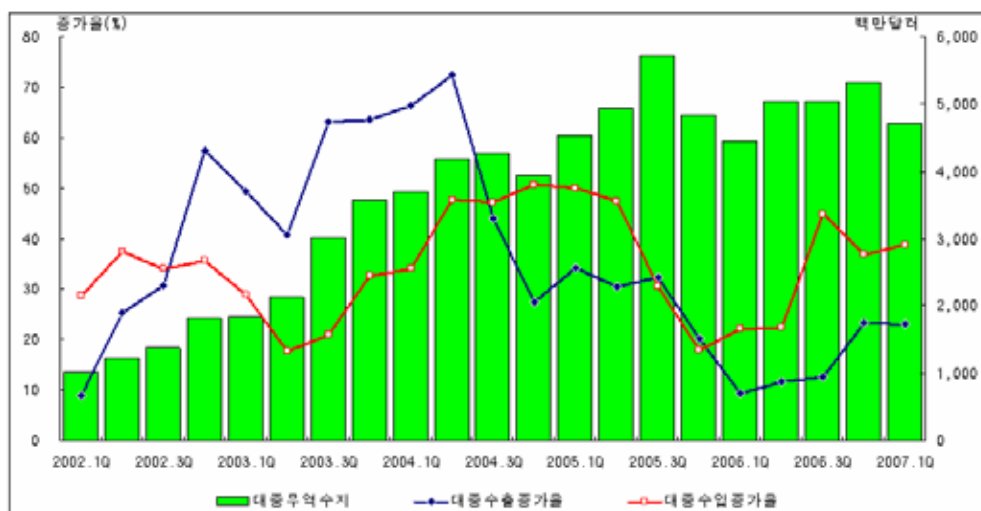
그림 4. 중국의 최종재 수출과 부품·소재 수입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부품소재통계

- 이러한 구조 변화가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2005년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부품·소재 수입증가율이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이 분야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축소되기 시작함.

그림 5. 부품·소재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부품소재통계

2. 무역특화지수를 통해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분석¹⁾

가.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 가공단계별²⁾로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보면 최종재의 경우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진 반면, 중간재는 수입대체 말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재는 1980년대에 수출기에 진입했고 1990년대 말 이후 성숙기로 접어들었으며, 자본재는 2001년 수출기에 접어든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반제품의 경우에는 2006년을 기점으로 수입대체기를 벗어나 수출기로 전환되고 있으며, 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입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6. 현재 중국의 가공단계별 산업발전단계(1993~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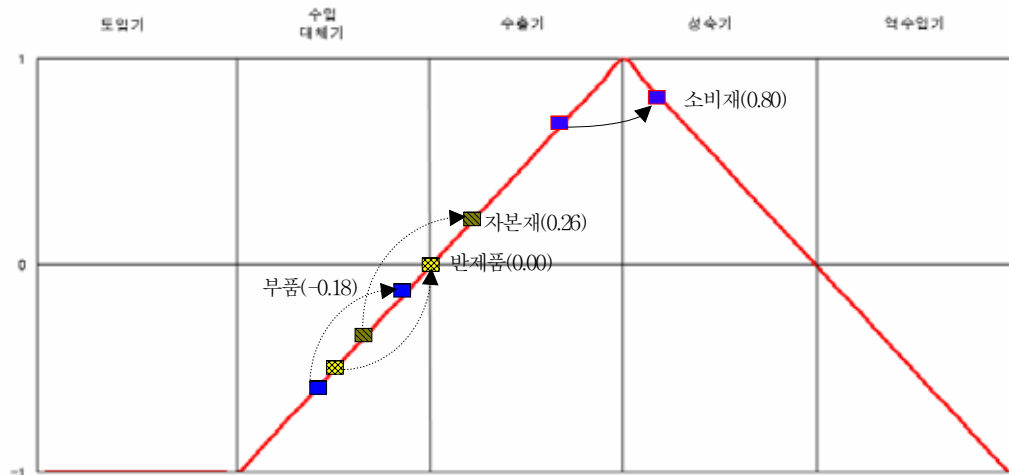


표 2. 중국의 가공단계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반제품	-0.17	-0.24	-0.23	-0.22	-0.21	-0.15	-0.08	0.00
부 품	-0.27	-0.26	-0.24	-0.23	-0.25	-0.23	-0.20	-0.18
자본재	-0.34	0.04	0.00	0.02	0.07	0.12	0.22	0.26
소비재	0.82	0.84	0.83	0.81	0.79	0.80	0.81	0.80

- 1) 한국의 대중국 부품·소재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중국내에서 수입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정 아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중국의 산업발전단계를 추정함. 무역특화지수는 $(X_i - M_i) / (X_i + M_i)$ 로 정의되며, X_i 는 i 국의 수출액을 M_i 는 수입액을 의미함.
- 2) UN의 BEC(Board of Economic Categories) 분류에 따라 HS 6단위 통계를 이용하여 1차 상품, 중간재(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자본재, 소비재)로 분류하였음.

나. 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

- 기술수준별³⁾로는 저위기술 산업의 경우 1980년대에 수출산업화 단계에 접어든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점차 상승하고 있음.
- 고위기술 산업은 2004년에, 중저위기술 산업은 2005년에, 중고위기술 산업은 2006년에 수입대체기를 벗어나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였음.
- 특히 중국의 중고위기술 산업의 경우 2005년에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급상승함.

그림 7. 중국의 기술수준별 산업발전단계(1993~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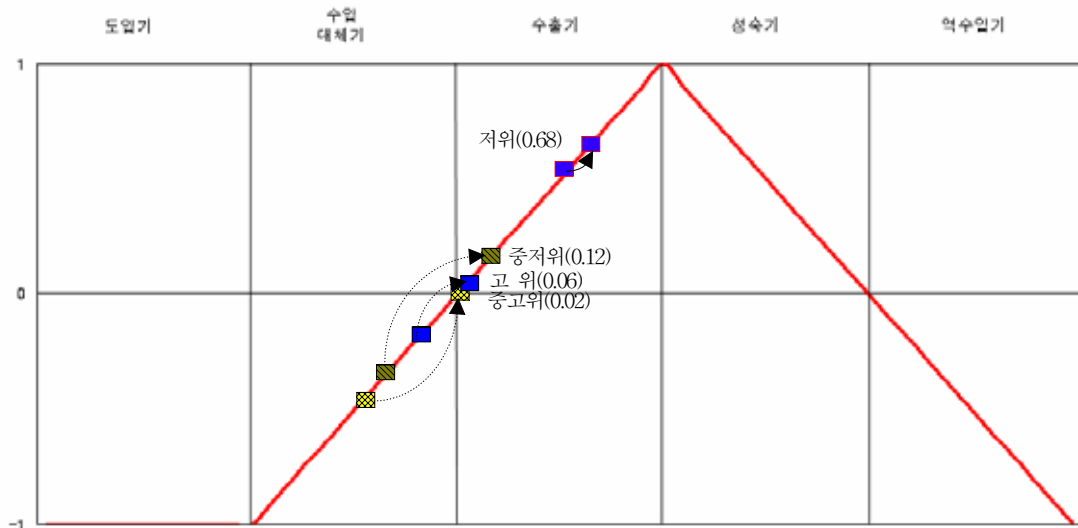


표 3. 기술수준별 무역특화지수 변화

	1993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고위기술	-0.27	-0.01	-0.04	-0.04	-0.06	-0.03	-0.02	0.01	0.04	0.06
중고위기술	-0.57	-0.34	-0.15	-0.11	-0.12	-0.15	-0.16	-0.13	-0.03	0.02
중저위기술	-0.41	-0.07	-0.08	-0.09	-0.10	-0.09	-0.10	-0.03	0.03	0.12
저위기술	0.52	0.51	0.55	0.55	0.57	0.58	0.60	0.60	0.65	0.68

3) 기술수준별 산업 분류에서는 OECD의 분류 기준을 따름. OECD는 22개 제조업을 제품군별로 기술집약도 지수(R&D 지출÷부가가치)에 따라 제품군을 저위기술(low tech), 중저위기술(medium low tech), 중고위기술(medium high tech), 고위기술(high tech)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① 고위기술 산업: 항공·우주,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통신, 의약품, ② 중고위기술 산업: 광학기기, 자동차, 전기기계, 일반기계, 화학, 기타 운송장비, ③ 중저위기술 산업: 고무·플라스틱 제품, 조선, 비철금속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조립금속, 석유정제, 철강, 기타 제조업, ④ 저위기술 산업: 인쇄·제지, 섬유·의복, 음식료·담배, 목재·가구 등임.

다. 업종별 무역특화지수

- 경공업 업종의 경우 수출기 후기 또는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나,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업종의 경우 아직까지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음.
- 의류, 가구, 문교체육용품, 음료 업종 등은 수출기를 거쳐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며, 직물, 가죽·모피, 음향기기, 고무 업종의 경우 1980년대에 수출산업화 되었으며, 가전, 컴퓨터, 기타 전기기기 등은 1990년대 중반에, 그리고 방송통신설비와 화학섬유, 철강 등은 2000년대에 들어서 수출산업으로 전환됨.
- 반도체, 산업기계, 우주항공의 경우 수입대체 초기이나, 일반기계, 자동차, 전자부품(반도체 제외)의 경우 수입대체 말기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됨.

표 4. 업종별 무역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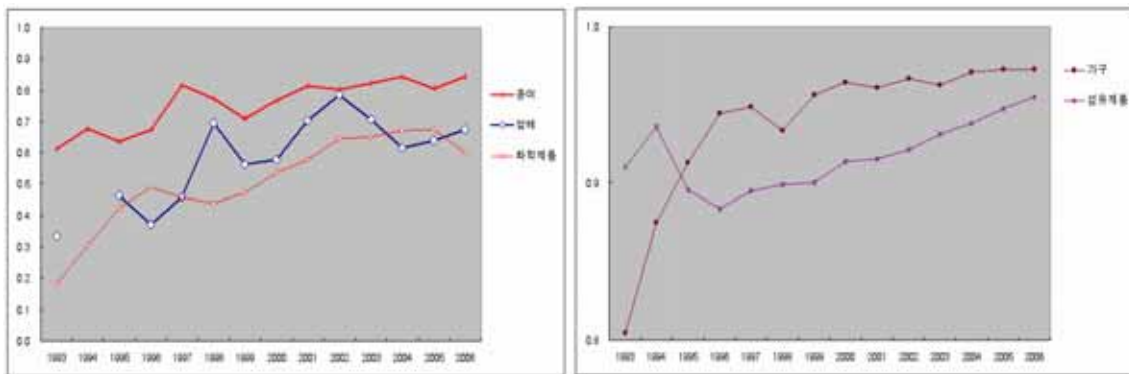
구분	업종	1995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수출기 진입시점
수입대체기	일반기계	-0.47	-0.25	-0.25	-0.27	-0.21	-0.11	-0.01	수입대체 말기
	기타 ICT제품 및 부품	-0.17	-0.24	-0.24	-0.24	-0.23	-0.15	-0.09	수입대체 말기
	자동차	-0.60	-0.46	-0.49	-0.60	-0.41	-0.15	-0.13	수입대체 말기
	비철금속	-0.21	-0.33	-0.33	-0.31	-0.26	-0.27	-0.18	수입대체 말기
	화학원료 및 제품	-0.12	-0.20	-0.25	-0.27	-0.27	-0.23	-0.20	
	정밀계측기기	0.22	0.05	-0.08	-0.24	-0.31	-0.24	-0.21	
	플라스틱	-0.39	-0.39	-0.37	-0.36	-0.36	-0.30	-0.26	
	석유제품·코크스	-0.22	-0.20	-0.21	-0.20	-0.20	-0.20	-0.32	
	종 이	-0.54	-0.62	-0.61	-0.56	-0.55	-0.45	-0.35	
	산업기계	-0.84	-0.73	-0.61	-0.60	-0.59	-0.46	-0.40	수입대체 초기
	반도체	-0.50	-0.65	-0.65	-0.67	-0.64	-0.65	-0.61	수입대체 초기
수출기	직 물	0.49	0.54	0.58	0.64	0.67	0.71	0.76	90년대 이전
	방송통신설비	-0.34	0.08	0.23	0.30	0.58	0.69	0.71	2000년
	가전제품	-0.10	0.52	0.56	0.56	0.58	0.64	0.68	1996년
	가죽·모피	0.59	0.66	0.67	0.69	0.68	0.71	0.68	90년대 이전
	식료품	0.25	0.61	0.67	0.66	0.63	0.68	0.67	90년대 이전
	음향기기	0.48	0.64	0.64	0.63	0.66	0.67	0.66	90년대 이전
	금속제품	0.61	0.64	0.63	0.59	0.59	0.61	0.62	90년대 이전
	목재가공	0.23	0.22	0.27	0.32	0.43	0.52	0.60	90년대 이전
	비금속광물	0.47	0.38	0.45	0.45	0.48	0.57	0.59	90년대 이전
	컴퓨터	0.22	0.29	0.35	0.44	0.50	0.51	0.53	1994년
	고 무	0.67	0.55	0.54	0.47	0.49	0.53	0.47	90년대 이전
	기타 전기기기	0.06	0.35	0.34	0.33	0.32	0.38	0.42	1995년
	철 강	-0.01	-0.22	-0.25	-0.33	-0.06	0.03	0.32	2005년
	화학섬유	-0.33	-0.19	-0.12	-0.02	0.09	0.19	0.29	2004년
성숙기	의 류	0.90	0.92	0.92	0.93	0.94	0.95	0.96	90년대 이전
	가 구	0.86	0.91	0.92	0.90	0.91	0.92	0.93	90년대 이전
	기타 운송장비	0.59	0.88	0.89	0.92	0.91	0.91	0.93	1994년
	문교체육용품	0.67	0.85	0.87	0.87	0.88	0.90	0.90	90년대 이전
	음 료	0.83	0.59	0.60	0.54	0.48	0.27	0.30	90년대 이전
	공예품 및 기타	0.78	0.75	0.73	0.68	0.63	0.60	0.57	90년대 이전

라. 소비재의 무역특화지수

- 중국 소비재 산업의 경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기 후기 또는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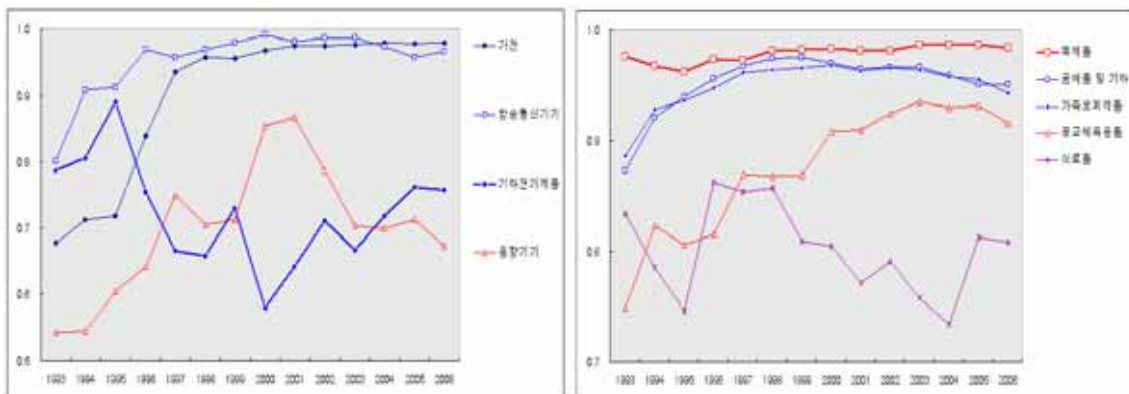
- 종이, 담배, 화학제품, 가구, 섬유제품 등은 수출기 후기에 위치함.

그림 8. 수출기 업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 가전, 목제품은 수출기에서 성숙기로 전환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식료품, 고무제품, 금속 제품, 가죽 및 모피제품, 플라스틱, 음향기기, 기타 전기제품(가전제품 제외), 문교체육용품 등은 성숙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그림 9. 성숙기 업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 완성차의 경우 수입대체 초기에 위치한 반면, 기타 전자제품의 경우 역수입기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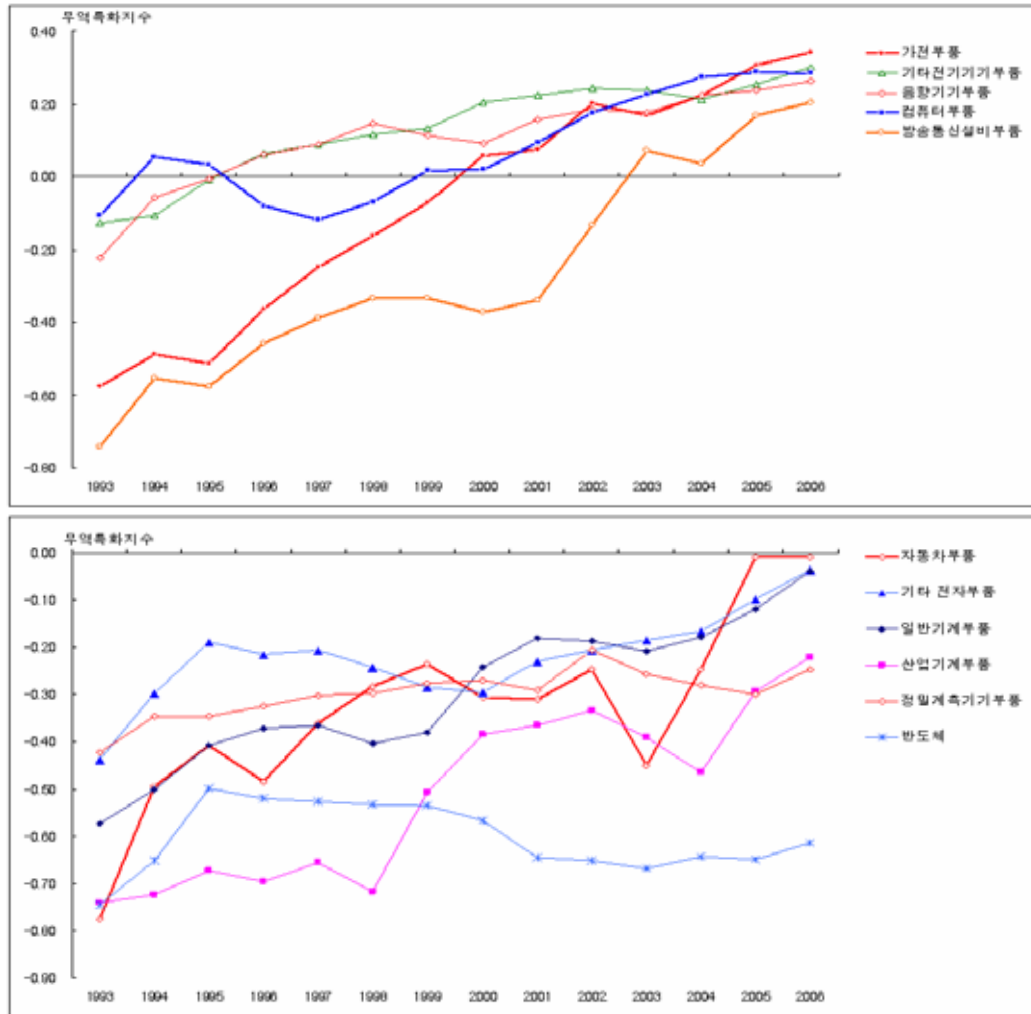
표 5. 중국의 소비재 무역특화지수

단계	업종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환 시점
수입 대체	의약품	0.12	-0.47	-0.50	-0.54	-0.59	-0.56	-0.56	-0.59	수입대체기
	자동차	-0.93	-0.92	-0.94	-0.96	-0.95	-0.87	-0.69	-0.64	수입대체 초기
수출기	담 배	0.46	0.58	0.70	0.79	0.70	0.61	0.64	0.67	수출기 후기
	화학섬유제품	0.56	0.52	0.04	0.24	0.18	0.28	0.67	0.87	수출기 후기
	인쇄 및 기록매체	0.15	0.46	0.49	0.49	0.55	0.60	0.55	0.54	수출기 중기
	화학제품	0.43	0.54	0.58	0.64	0.65	0.67	0.67	0.60	수출기 중기
	섬유제품	0.90	0.91	0.92	0.92	0.93	0.94	0.95	0.96	수출기 후기
	가 구	0.91	0.96	0.96	0.97	0.96	0.97	0.97	0.97	수출기 후기
	종 이	0.64	0.77	0.81	0.80	0.82	0.84	0.80	0.84	수출기 후기
성숙기	가 전	0.72	0.97	0.97	0.98	0.98	0.98	0.98	0.98	성숙기 전환기
	목제품	0.96	0.98	0.98	0.98	0.99	0.99	0.99	0.98	성숙기 전환기
	고무제품	0.98	0.97	0.98	0.98	0.97	0.97	0.96	0.97	성숙기(90년대 이전)
	음 료	0.83	0.48	0.55	0.59	0.49	0.47	0.24	0.05	성숙기(90년대 초반)
	식료품	0.75	0.80	0.77	0.79	0.76	0.73	0.81	0.81	성숙기(90년대 초반)
	기타 전기제품	0.89	0.58	0.64	0.71	0.67	0.72	0.76	0.76	성숙기(90년대 중반)
	금속제품	0.88	0.89	0.89	0.89	0.88	0.92	0.93	0.93	성숙기(90년대 중반)
	가죽모피제품	0.94	0.97	0.96	0.97	0.96	0.96	0.96	0.94	성숙기(90년대 말)
	전자통신	0.71	0.80	0.79	0.73	0.66	0.66	0.67	0.65	성숙기(90년대 말)
	계측문화사무기기	0.87	0.87	0.81	0.71	0.63	0.54	0.46	0.44	성숙기(90년대 말)
	공예품 및 기타	0.94	0.97	0.97	0.97	0.97	0.96	0.95	0.95	성숙기(90년대 말)
	문교체육용품	0.81	0.91	0.91	0.92	0.94	0.93	0.93	0.92	성숙기(2003년)
	방송통신설비	0.91	0.99	0.98	0.99	0.99	0.97	0.96	0.97	성숙기(2000년대 초)
	플라스틱	0.60	0.68	0.70	0.70	0.66	0.65	0.65	0.67	성숙기(2000년대 초)
	음향기기	0.60	0.85	0.87	0.79	0.70	0.70	0.71	0.67	성숙기(2000년대 초)
역수입	기타 전자제품	0.90	0.36	0.35	0.33	0.27	0.12	-0.01	0.09	역수입기 전환기

마. 주요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 가전부품, 전기부품, 음향기기부품, 컴퓨터부품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수출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부품 역시 2003년 이후 수출기로 전환됨.
- 자동차부품, 일반기계부품, 기타 전자부품(반도체 제외)의 경우 수입대체 말기에 위치하고 있음. 반도체, 정밀기계부품, 산업기계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있으나 수입특화지수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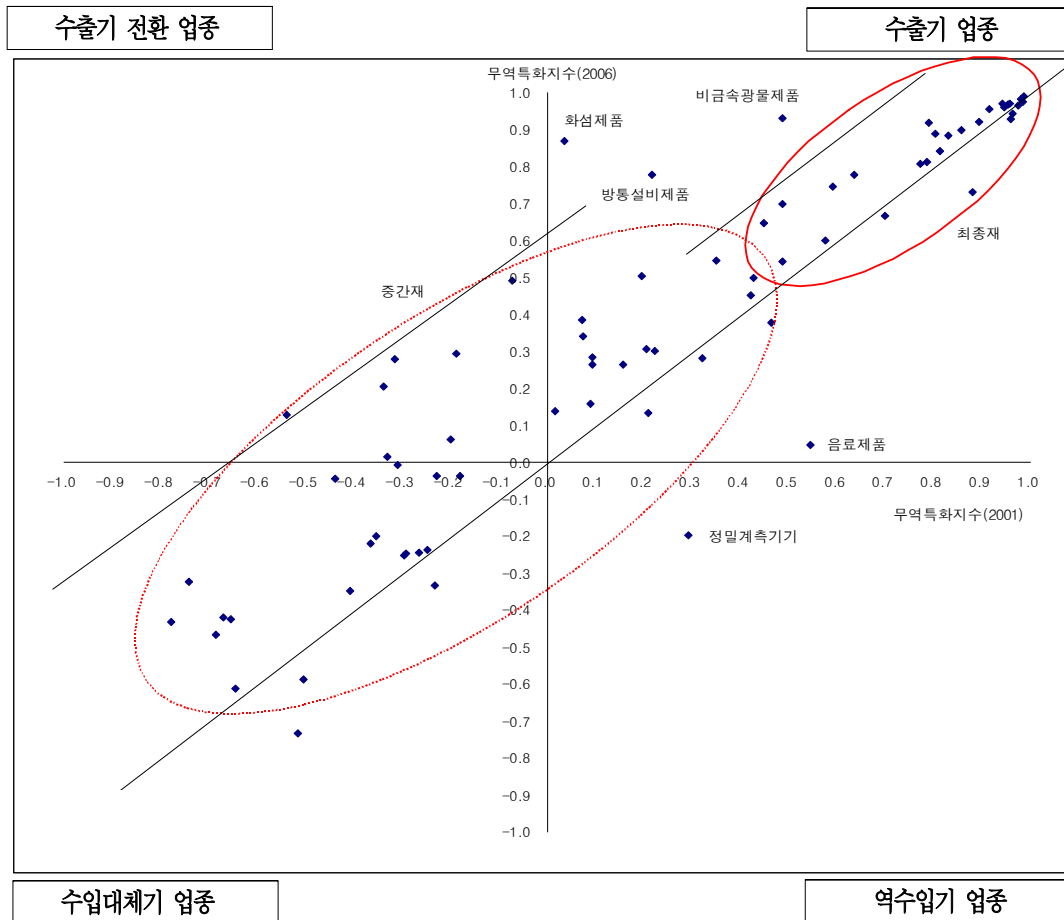
그림 10. 주요 부품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4.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의 시사점

- 최종재 뿐만 아니라 중간재에서도 중국내 수입대체와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중국의 수출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의 대중국 수출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1 참고).
- 또한 중국은 산업발전단계 중 성숙기에 진입한 업종에 대해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해나갈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그림 11. 중국의 업종별 무역특화지수 변화(2001~06년)



■ 업종별 산업발전단계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자동차 업종의 경우 완성차는 수입대체기에 있으나, 자동차부품의 경우 수입대체 말기에 위치하고 있어 조만간 수출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향후 우리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의 대중국 수출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최종재에서는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핵심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어 부품의 대중국 수출 여건은 단기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부품산업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빨라지고 중장기적으로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대중국 수출 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 최종재에서는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되며, 소재(직물, 화학섬유원료 등) 분야에서도 수출산업 초기 단계에 진입하였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직물과 화학섬유원료를 중심으로 대중국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대중국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

- 화학산업의 경우 최종재에서 중국의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급도가 낮은 중간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최종재의 대중국 수출은 단기적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최종재에서 중국의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국내 자급도가 낮은 화학원료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중단기적으로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임. 단, 장기적으로는 원료산업에서도 수입대체가 가속화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기계류의 경우 정밀기계 업종의 대중국 수출은 호조세가 중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일반기계류의 경우 중기 이후 대중국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6. 주요 업종별 중국의 산업발전단계와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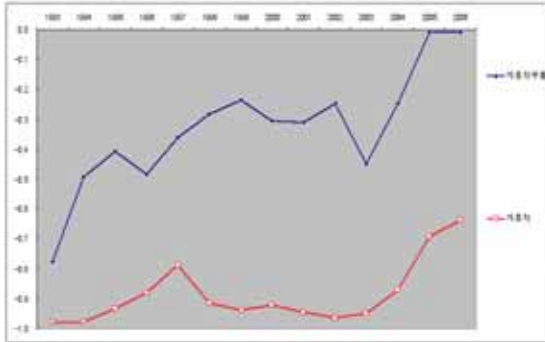
업종		대중국 수출환경 전망			비 고
		단기	중기	장기	
섬유 의류	화학섬유	+	-	--	화학섬유원료의 수입대체 진전 화학섬유제품의 수출산업화 가속화
	의류 및 섬유제품	-	--	--	중국의 성숙 단계 진입
	직 물	+	-	--	수입대체 진전, 수출산업화 가속화
화학	화학원료	++	+	-	수입대체기 단계
	화학제품	+	-	-	수출산업화 진전
	플라스틱원료	+	+	-	수입대체기 단계
	플라스틱제품	-	-	--	수출산업화 가속화
자동차	자동차부품	+	+	-	대중 투자업체의 현지조달 강화
	완성차	+	-	-	현지 조립 확대
전기 전자	가전부품	-	-	-	현지 자급도 상승
	가전제품	-	-	-	현지생산체제 구축
	전자통신기기부품	+	+	-	하이테크부품의 낮은 자급도
	전자통신기기제품	+	-	-	대형 디지털가전 수요 증가
	반도체	++	+	+	낮은 자급도 지속
	컴퓨터	-	--	--	중국의 수출산업화 가속화
	컴퓨터부품	+	-	--	중국의 수출산업화
기계류	일반기계부품	++	+	+	기계부품의 수입특화
	일반기계	+	-	-	중국의 수출산업화 가속화
	산업기계부품	+	+	+	낮은 자급도, 선진국과의 경쟁 치열
	산업기계	+	+	+	선진국과의 경쟁이 문제
	정밀기계부품	++	+	+	낮은 자급도, 선진국과의 경쟁 치열
	정밀기기	+	+	+	선진국과의 경쟁
기타	가죽·모피제품	--	--	--	중국의 성숙기 단계 진입
	가죽·모피	-	-	-	가공무역 규제 강화

주 : 단기는 향후 1~2년 중기는 향후 5년, 장기는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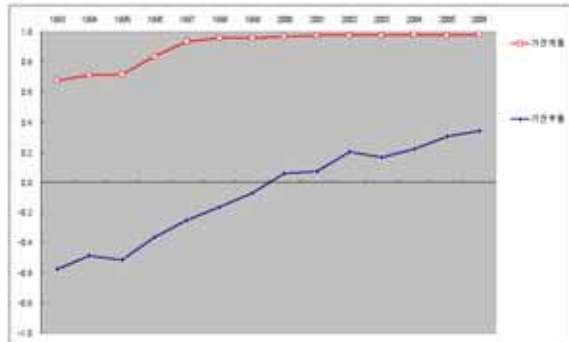
자료 : 필자 작성

[부록] 주요 업종별 중국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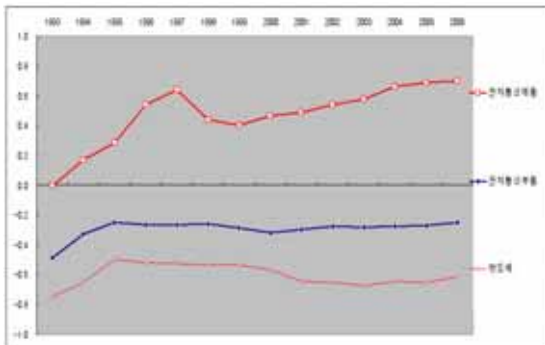
①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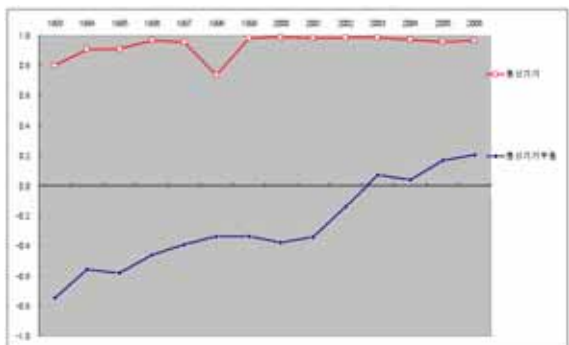
② 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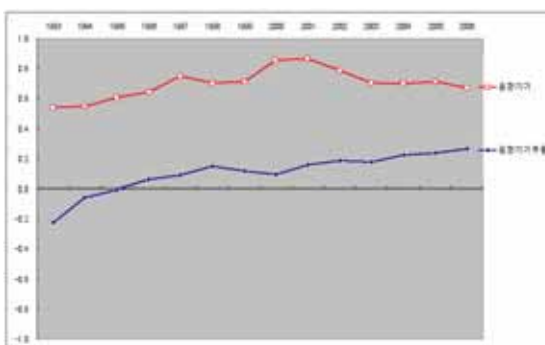
③ 전자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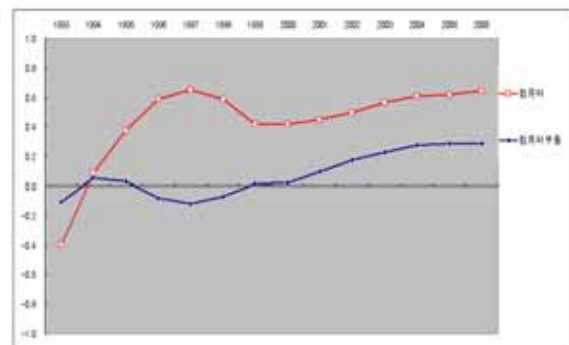
④ 통신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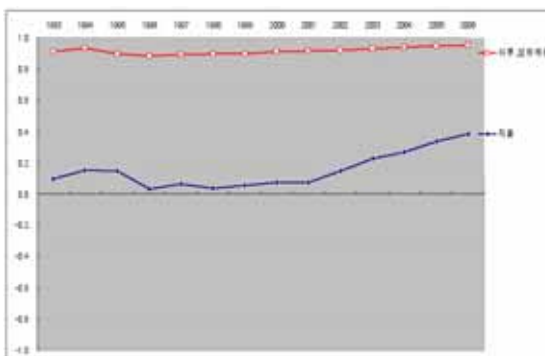
⑤ 음향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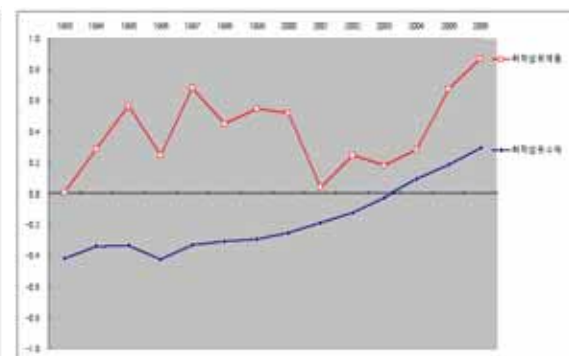
⑥ 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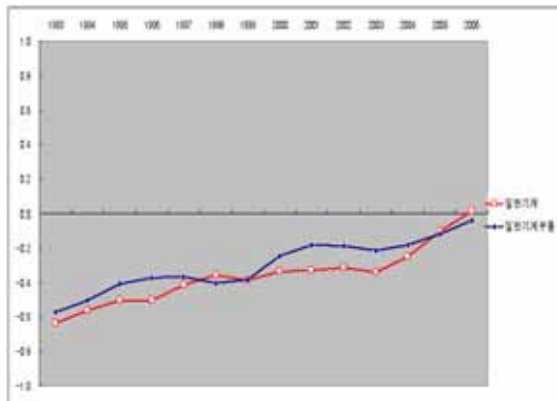
⑦ 의류·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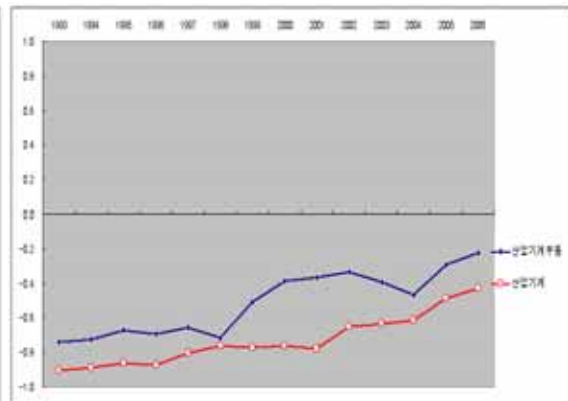
⑧ 화학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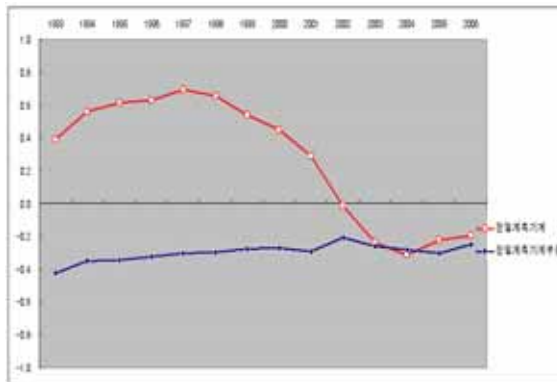
⑨ 일반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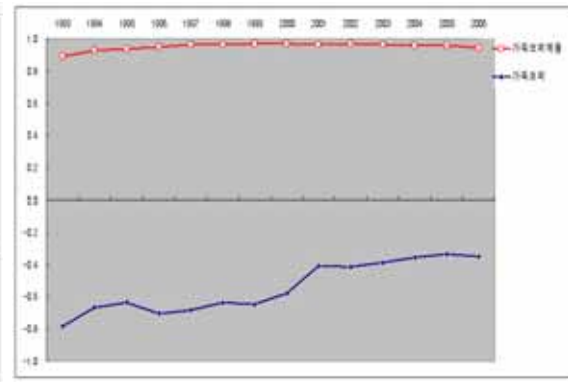
⑩ 산업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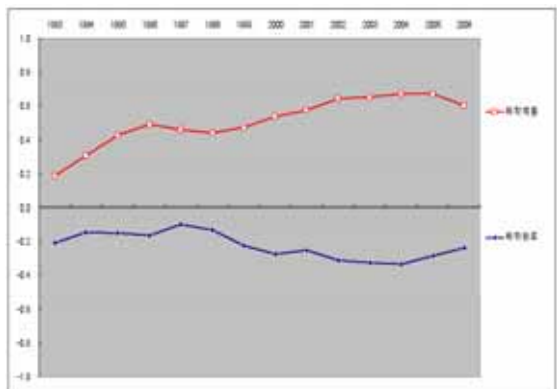
⑪ 정밀·계측·사무기기



⑫ 가죽·모피



⑬ 화학제품



⑭ 플라스틱

